

고린도후서1:12-24 우리의 사랑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우리의 양심이 자량이 되어 한다. (12)

헬라이어 '쉬네이테시스' 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와 함께' 라는 '쥘'과, '눈으로 본다'라는 '에이도'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같이 본다' '다같이 보고 있다' 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양심적이라고 떠들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교회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 받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완전히 알게 될 날이 있다.(13)

1)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14)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키는 거짓 사도들의 역할이 한 몫 했습니다. 그 원인이 너희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2)주님의 날에는 서로서로 자량이 될것이다.(14)

그동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바울은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사도들과 한패가 되어서 바울 자신에 대해 모질게 대한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그들이 나의 자량이 되고 내가 그들의 자량이 될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전13:7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 할까요? 아니면 효도하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 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